

제 ① 교시

국 어

1. 다음 대화에서 '지혜'의 말하기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혜야, 이번에 갑자기 동아리 부장을 맡게 되었는데, 동아리 활동 주제로 무엇을 선정해야 할지 고민이야.

그래, 걱정이 많겠구나. 그래도 너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 ① 감사 ② 격려 ③ 사과 ④ 양보

2. 다음 토의에서 알 수 있는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자: 안녕하세요. ○○신문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요즘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늘 토의에서는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의에 참여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학부모 대표 한마음 님, 김다정 상담 선생님, 김나래 학생, 그리고 이한결 학생입니다.

- ① 토의의 배경을 안내한다.
② 토의의 주제를 제시한다.
③ 토의의 참여자를 소개한다.
④ 토의의 발언 순서를 정한다.

3. 다음에서 설명하는 모음이 사용된 것은?

원순 모음이란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린 상태에서 내는 소리이다.

- ① 노루 ② 다리 ③ 마음 ④ 베개

4.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문장 성분이 ㉠과 다른 것은?

나는 ㉠ 모든 동물을 좋아한다.

- ① 세차게 비가 내렸다.
② 나는 새 책상을 구입했다.
③ 그는 옛 추억을 떠올렸다.
④ 그곳은 온갖 보물로 가득했다.

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공통된 품사로 옳은 것은?

- 너는 지금 어디로 가니?
○ 이것은 내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다.

- ① 감탄사 ② 관형사 ③ 대명사 ④ 형용사

6. 다음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은?

■ 표준 발음법 ■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하, 해)’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 ① 놓다[노따] ② 쌓고[싸코]
③ 앓던[안턴] ④ 닳지[달치]

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은?

- ① 이게 웬 떡이냐?
② 다음 일요일에 배요.
③ 나는 학교에 알 갔다.
④ 감기가 날기를 바랍니다.

8. 다음 중 ㉠에 들어갈 ‘관용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어제 기분을 전환하려고 혼자 뒷산에 올랐다. 정상에 오르자마자 나는 ㉠ 왜냐하면 벚꽃과 어우러진 마을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 ① 입을 모았다. ② 입을 맞쳤다.
③ 입이 무거워졌다. ④ 입이 딱 벌어졌다.

9. 다음 개요에서 통일성에 어긋나는 것은?

주제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자.
서론	자전거 타기에 대한 관심 증가
본론	1. 자전거 타기의 신체적 효과 ㉠ 2. 자전거 타기의 경제적 효과 ㉡ 3. 자전거 타기의 환경적 효과 ㉢
결론	친환경 자동차 이용 권유 ㉣

- ① ㉠ ② ㉡ ③ ㉢ ④ ㉣

10. ㉠~㉢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은 세종 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이다.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 본따 만들어 배우기가 쉽다. ㉡ 세종 대왕 때 해시계와 측우기 등 여러 과학 기구가 발명되었다. 이러한 한글은 오늘날 K-문화의 인기로 힘입어 전 세계 ㉢ 사람들을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글을 더욱 아끼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 ① ㉠: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본떠’로 고친다.
- ② ㉡: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삭제한다.
- ③ ㉢: 조사의 쓰임이 맞지 않으므로 ‘사람들의’로 바꾼다.
- ④ ㉣: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비록’으로 수정한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할머니, 누나와 피란을 떠난 ‘나’는 인민군을 보고 겁을 먹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마을 사람들이 재 너머 학교를 향해 물러갈 때, 골목길에서 생판 모르는 녀석인 ‘명선’은 ‘나’에게 배가 고프니 ‘나’의 집으로 가자고 한다.

오히려 녀석이 앞장을 서고 내가 그 뒤를 따랐다. 나는 녀석의 바지 주머니가 볼록한 것을 보았다. 걸음을 옮길 적마다 볼록한 주머니가 연방 덜렁거리고 있었다. 틀림없이 간밤에 누구네 밭에서 서리를 한 설익은 ㉠ 참외 아니면 감자가 그 속에 들어 있을 것이었다.

“엄니! 엄니!”

마당에 들어서면서 어머니를 거꾸 불렀다. 부엌에서 기명¹⁾을 부시던 어머니가 무심코 마당을 내다보다가 내 등 뒤에서 쪽 볼가져 나오는 녀석을 발견하고는 대번에 질겁 잔망을 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녀석은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쳤다.

“아아니, 요 작것이지!”

어머니가 소맷부리를 걷으며 단숨에 마당으로 내달아 나왔다. 참외 서리나 하고 다니는 피란민 아이한테 어머니가 이제 곧 본때 있게 손찌검을 하려나 보다고 나는 지레짐작을 했다. 그런데 웬걸, 어머니는 녀석 대신 내 귀를 잡아끌고는 뒤란²⁾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요 웬수야, 지 발로 들어와도 냉큼 쫓아내야 할 놈을 어찌 자고, 어찌자고…….”

어머니는 내 머리통에 대고 거둬 준밤을 쥐어박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감잡이라서 울음보를 터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중략)

“아줌마!”

이때 녀석이 또 예의 그 계집애처럼 간드러진 소리로 어머니를 불러 세웠다.

“따른 집에나 가 보라니께!”

“아줌마한테 요걸 보여 줄려구요.”

녀석은 엄지와 인지³⁾를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그 동그라미 위에 다른 또 하나의 작은 동그라미가 노란 빛깔을 띠면서 날름 올라앉아 있었다. 뒤란 그늘 속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걸 보더니 어머니의 눈에 환하게 불이 켜졌다.

“아아니, 너, 고저 금가락지 아니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반지는 어느새 어머니의 손에 전너가 있었다. (중략)

“아가, 너 요런 것 어디서 났냐?”

옷고름의 실밥을 뜯어 그 속에 ㉡ 금반지를 넣고 웅숭깊은 저 밑바닥까지 확실히 닿도록 두어 번 흔들고 나서 어머니는 서울 아이한테 물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울 아이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간드러지게 들렸다. (중략)

“어서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자. 에런것이 천 리 타관(他官)서 부모 잃고 식구 놓치고 얼마나 배고푸고 속이 짜진냐.”

이런 곡절 끝에 명선은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 (중략)

이때 우리들 머리 위의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귀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가고 있었다. ㉢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 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한 송이 ㉣ 취바라송꽃이었다.

- 윤홍길, 『기억 속의 들꽃』 -

- 1) 기명: 살림살이에 쓰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 2) 뒤란: 집 울타리의 안.
- 3) 인지: 집게손가락.

11. 다음 중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명선’의 뒤를 따라갔다.
- ② ‘명선’은 천연덕스럽게 행동했다.
- ③ ‘나’는 ‘명선’을 집에서 쫓아냈다.
- ④ ‘명선’은 비행기를 유독 무서워했다.

12. ㉠~㉢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사건 전개의 중심 소재이며, 명선이가 어른들의 환심을 사는 수단이자 생존 수단이다.

- ① ㉠ ② ㉡ ③ ㉢ ④ ㉣

13. 다음 중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어머니’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심하다. ② 순수하다.
- ③ 욕심이 많다. ④ 부끄러움이 많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①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반찬이 가득한 늦은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 넣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 공광규, 「얼굴 반찬」 -

14. 다음 중 윗글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있다.
- ② 가난한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 ③ 과거를 추억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 ④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15. 다음 중 ㉠과 같은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은?

- 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②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③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
- ④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16. 다음 중 윗글의 화자가 바라는 밥상 풍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족이 대화 없이 밥만 먹는 모습
- ② 가족이 모여 정겹게 밥을 먹는 모습
- ③ 자녀가 빨리 밥만 먹고 나가려는 모습
- ④ 자녀가 반찬을 투정하며 밥을 먹는 모습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반이란, 선비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 양반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還穀)¹⁾을 꾸어다 먹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 섬에 이르렀다.
강원도 감사가 정선 고을을 돌아보다가 환곡 장부를 조사
하고 크게 노하였다.

“어떤 놈의 양반이 나라의 곡식을 축냈단 말이냐?”

감사는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군수도 양반의 빚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였다.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환곡을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려. 쫓쫓, 양반이라니……. 한 푼
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그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하였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이 아니
므로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며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아래 엎드려
[A] 절해야 하고,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한다.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 보자.”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청하
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았다.

군수는 양반이 천 섬이나 되는 환곡을 모두 갚자 몹시
놀랐다. 군수는 환곡을 갚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 양반이 병거지²⁾에 잠방이³⁾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小人), 소인.’ 하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 박지원, 「양반전」 -

- 1) 환곡: 조선 시대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또는 그 곡식.
- 2) 병거지: 주로 병졸이나 하인이 쓰던 털로 만든 검고 두꺼운 모자.
- 3) 잠방이: 옛날에 흔히 농사꾼들이 일할 때 입던 반바지.

17.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를 장과 막으로 전개한다.
- ② 의인화된 사물의 일생을 기록한다.
- ③ 실제 경험한 일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 ④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18. 다음 중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반’은 해마다 환곡을 꾸어다 먹었다.
- ② ‘군수’는 ‘양반’을 딱하게 여겼다.
- ③ ‘양반’은 일을 해서 환곡을 갚았다.
- ④ ‘군수’는 ‘양반’이 환곡을 갚자 놀랐다.

19. [A]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자가 아니면 천대받았다.
- ② 돈으로 신분을 살 수 없었다.
- ③ 양반은 모두 경제적으로 풍족했다.
- ④ 경제적 능력보다 신분을 중요시했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은 집집마다 다양한 전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실내 ㉠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에어컨, 그 밖에도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제품은 셀 수 없이 많다. 이처럼 전기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소중한 자원이지만,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기를 ㉡ 절약하는 방법을 고민하곤 한다.

이처럼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적정 기술이다. 적정 기술은 한 공동체의 문화·정치·환경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을 일컫는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자본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적정 기술의 예로는 나이지리아의 교사인 모하메드 바 압바가 개발한 ‘항아리 냉장고’가 유명하다. ‘항아리 냉장고’는 냉장고가 없는 지역이나 냉장고가 있더라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음식물 보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발명품이다. 보관 기간이 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토마토나 후추와 같은 식품들이 냉장고에 보관하면 무려 21일 정도까지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는 간단하다. 먼저 큰 ㉢ 항아리 속에 작은 항아리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두 항아리 사이의 공간을 젖은 모래로 채운 다음, 젖은 형겅으로 작은 항아리를 덮는다.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는 단열 작용을 하여 외부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모래 속의 물은 ㉣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는 역할을 한다. 이 덕분에 작은 항아리 안의 온도가 낮아져 채소나 과일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원춘 외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 -

20.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무한하다.
- ② 적정 기술은 문화·정치·환경을 고려한 기술이다.
- ③ 적정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자본이 적게 들어간다.
- ④ ‘항아리 냉장고’는 전기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유용하다.

21. 다음 중 [A]에 쓰인 설명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분류 ② 비교 ③ 예시 ④ 대조

2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
- ② ㉡: 꼭 필요한 데에만 써서 아낌.
- ③ ㉢: 아래위가 좁고 배가 부른 질그릇.
- ④ ㉣: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달 산업이 커지면서 속도는 경쟁력이 되었다. 전국 어디서나 며칠 이내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받는 당일 배달도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배달은 무조건 빠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

소비자로서는 세상이 편해졌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다. 일부 택배 기사들은 빨리 배달하려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어겨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다. 2012년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택배 업종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가운데 도로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런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빠른 속도를 강요하는 배달 구조이다. (중략)

규모가 커지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느는 게 당연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그렇지 못하다.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배달하려는 가격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택배 기사 개인의 수입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중략) 결국 더 싸게 더 많이 배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눈코 뜰 사이 없이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렇듯 택배 기사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속도 경쟁, 소비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경쟁의 부담을 기업도 소비자도 아닌 택배 기사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택배 기사들은 택배 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택배 기사들 역시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김용섭,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 -

23.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각 자료를 사용하였다.
- ② 실험의 결과를 예측하였다.
- ③ 직접 면담한 내용을 활용하였다.
- ④ 전문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다.

24. 다음 중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러나 ② 반면에 ③ 심지어 ④ 왜냐하면

25. [A]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택배 기사는 노동자이다.
따라서 (㉦)

- 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수입이 늘어났다.
- ② 택배 기사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 ③ 노동자는 다른 업종으로 직업을 바꿀 권리가 있다.
- ④ 소비자는 더 싼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